대한민국 제도혁의 힘, 창조경제
경제혁신
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보도자료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2015년 9월 16일(수) 석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9. 16(수) 오전 6시 이후 보도가능)
문의 : 산업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이귀현 과장(044-203-5390), 김기열 사무관(5391)

에너지신산업, 민간 투자 확대의 활로를 찾는다 !

- 제2차 에너지신산업 투자협의회 개최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**에너지신산업의 주요 사업모델**에 대한 **투자 확대 방안을 논의**하기 위해 **다양한 형태의 투자기관**들로 구성한 **'제2차 에너지신산업 투자협의회'를 열었다.**

< 행사 개요 >

○ 일시 및 장소 : 2015. 9. 16(수), 08:00~09:40, 팔레스호텔

○ 참석자

* 에너지신산업정책단장, 삼정 케피엠지(KPMG), 발벡 키이피엘(BALBEC KPL), 산업은행, 우리은행, 대신증권, NICE 신용평가, 케이티비(KTB) 사모펀드, 삼성화재, 이상 기술투자

○ 이는, 박근혜 정부의 **24개 핵심 개혁과제**로 추진된 **'에너지 신산업 활성화 이행계획'의 후속 조치**로, 정부와 투자기관, 기업 간의 정보 공유 등을 통해 **투자 불확실성을 해소**하여 **에너지신산업과 민간 투자를 연계**하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정부는 기존 에너지산업에 정보통신기술(ICT)를 결합하여 **탄소배출을 저감**하면서 **새로운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창출**하는 **에너지신산업을 육성**하기 위해 **제도개선, 공공수요 창출 등의 지원을 확대**하고 있지만,

○ 아직은 **시장 형성 초기 단계**에 머물고 있어, **정체된 우리 경제의 돌파구로 자리매김**하기 위해서는 **보다 과감한 민간의 투자**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.

□ 이번 협의회는 에너지신산업의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**'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'**과 **'전기차 유료 충전 서비스'**의 사업 유형(비즈니스 모델)을 소개하고, 전문가들과 **민간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**을 **논의**하는 순서로 진행됐다.

< 주요 사업 내용>

○ **(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 조성사업)** 기존 디젤방전 중심의 전력공급 체계를 정보통신기술(ICT)가 융합된 신재생발전원으로 대체

* 한국전력, 경상북도, 울릉군, 엘지 씨엔에스(LG CNS), 도화 엔지니어링 등이 **'울릉도 친환경 에너지자립섬(주)'** 설립

○ **(전기차 유료 충전 서비스)** 전기차 보급의 최대 걸림돌인 충전 인프라를 민간 서비스 시장 창출을 통해 개선

* 한국전력, 케이티(KT), 현대기아차, 비긴스, 스마트그리드 협동조합 등으로 구성된 **'한국 전기차충전서비스(주)'** 설립

○ 또한, 에너지신산업 분야 중소·중견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**500억 원 규모**로 **조성**되는 **에너지신산업 기금(펀드)의 운용방안**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.

□ 아울러,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신**기후변화체제에 대응**해 **새로운 투자처를 찾는 과정**에서 **에너지신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**지고 있으나, **객관적인 실적(Track Recrd)의 부재, 장기적인**(10년 이상) **회수기간, 낮은 수익률** 등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운 투자 제약 요인들을 **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해결해 줄 것을 요청**했다.

□ **나승식 에너지신산업정책추진단장**은 "**온실가스 감축**과 **새로운 주력 산업의 발굴**이라는 국내외적인 문제에 직면한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주요 수단으로서 **에너지신산업의 중요하다.**"라고 강조했다.

○ 또한 "정부는 **융자사업 신설, 에너지신산업 육성 특별법(안) 제정을 통한 투자 애로 해소** 등 다양한 방법으로 **에너지신산업의 시장 창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**이고, 민간 투자기관들도 에너지신산업에 대한 **선도적인 투자를 통해 에너지 체계(패러다임)가 변화하는 시대 이다.**"**라며 기업이 동참해 달라고** 말했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진흥과 김기열 사무관(☎ 044-203-539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